

## 정책동향

### 중기청, 엔젤활동 적극 지원

중기청은 극도로 위축된 투자 분위기를 일신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엔젤의 각종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중기청의 시책은 첫째, 엔젤클럽간 상호 공동협력과 성숙된 엔젤투자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엔젤투자협력체(KBAN : Korea Business Angel Network)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엔젤투자협력체는 엔젤과 엔젤클럽간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클럽간 정보교류 및 각종 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둘째, 중기청, KBAN, 엔젤클럽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마트를 개척하고, 투자 완료시까지 엔젤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펼친다. 또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마트를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셋째, 엔젤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설, 엔젤 및 엔젤클럽,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등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엔젤투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넷째, 엔젤클럽별로 분산 개최했던 엔젤투자마트는 연간 개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클럽별, 지역별 중복을 피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4회 개최했던 투자마트를 내년에는 20회로 확대하고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마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엔젤활동을 벤처마케팅해 엔젤투자시장이 성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2003년 전자상거래 정책 과제' 발표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가 '2003년 전자상거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03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계획'은 e비즈니스의 심화와 확산을 뼈대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내년도에 총 3652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과제는 크게 법·제도정비,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등 4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자무역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총 6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면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확충한다. 총 2547억원의 예산을 들여 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개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랜 등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 기간망을 지속,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확충(200억원)과 중소기업의 IT화지원(686억원)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전자무역과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통합전자무역 플랫폼,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e무역상사 육성 등 전자무역 기반조성(26억7000만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 경영분석 및 진단
- 재무 및 회계 자문
- 정책자금 및 직·간접 투자유치
- 해외시장 개척
- 해외 직접 투자 지원 (중국 초보 30만평의 한국전용산업단지 조성, 협회의 독점적 지위로 입주 알선)

## 기술동향

## 차세대 정보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착수

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희동)이 지난 10일 한양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기술사업단은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사업단은 10년 동안 총 사업비 2220억원(정부 1020억원, 민간 1200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이후 디스플레이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기능, 일체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또한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LCD(액정표시장치), PDP(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상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올해는 전유기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차세대 시스템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개발, 차세대 HDTV용 TFT-LCD 및 PDP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 11개 세부과제에 3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박 단장은 “차세대 정보디스플레이가 반도체를 대신해 21세기 수출주력상품으로 자리잡도록 원천요소기술 및 핵심공정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의 하나로 광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양국가 간 ‘과기포럼’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광기술 협력센터의 한국측 주관기관은 원자력 연구소이며, 중국측은 빠른 시일 내에 담당기관을 선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한·중 과기공동위에는 한국측에서 과기부 이승구 차관, 중국측에서 과기부 마쑹더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 정통부, 이메일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 보급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메일 주소를 무단 추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는 스팸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인 ‘네버스팸’을 개발했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이번에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www.spamcop.or.kr)를 통해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 정통부가 이와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기로 한 것은 법규 강화와 함께 네티즌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스팸메일 발송에 이용되는 이메일주소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5만원에서 30만원에 거래돼, 이메일주소추출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되고 있다.

정통부는 공공기관, 포털 및 검색사이트, 일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이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사이트에 이메일주소가 특정 아이콘이나 사람이름 등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네자리 자연수를 입력해야만 이메일주소를 볼 수 있게 해 추출기가 인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메일주소추출기 등을 이용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Starbridge  
COMMUNICATION, TECHNOLOGY & PEOPLE

산업동향

바이오벤처-대기업 제휴 붐

대기업의 생산 및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제휴 움직임이 한창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조직과 자금이 취약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함께 시장을 개척할 경우 유통채널·브랜드 인지도 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은 손쉽게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

유진사이언스(대표 노승권)는 최근 주유소 유통망과 백화점·할인점 등을 확보하고 있는 SK와 손잡고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 쌀 'OK라이스 콜제로'를 판매하기로 했다.

니코틴 저하물질을 개발한 유젠바이오(대표 오형진)는 울초 동양제과와 제휴하고 니코틴 저하효과가 있는 기능성 껌을 출시해 월평균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기능성 껌시장의 2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CJ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협력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원료나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판매와 유통을 분담하는 수평적 파트너십까지 바이오벤처와 다양한 제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기반제조업 수도권 집중

IMF 경제위기 이후 지식기반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 김영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산업경제정보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 수 순증가의 75.3%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절반에 가까운 1661개가 3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에서 순증가를 보인 산업은 통신기기, 첨단전자부품, 정밀기기 등이었으며, 첨단운송장비의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식기반제조업에 있어 수도권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생산 환경을 갖췄고,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집중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뉴스

[중국] 투자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요즘 신문지상에서 값싼 중국제품 때문에 세계 디스플레이 선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투자가 몰려온다'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중국기업들이 국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중국에 투자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500억달러에 비한다면, 중국이 외국에 투자하는 액수(24억달러)는 그리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의 국외투자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바로 80~90년대 일본과 한국의 국외투자 패턴을 고스란히 닮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미국] 내년 IT경기 낙관적 전망

인텔, 휴렛팩커드(HP), 시스코시스템즈 등 세계정보기술(IT)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년에는 세계 IT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12% 증가하는 등 IT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EO들은 이에 따라 확장위주의 공격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렛 인텔 사장은 "18개월마다 컴퓨터 성능이 2배로 향상되는 '무어의 법칙'이 앞으로 최소 15년간은 지속되며, 내년에는 PC의 교환주기가 도래해 PC시장을 중심으로 IT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ETRI는 "한국 IT산업도 내년에는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 2002년 3.48%에 그쳤던 전세계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는 3.77%로 늘어나고, 2006년에는 4.5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유럽 통신산업 위기 아니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집행위원회(EC)가 유럽 통신업계의 위기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 보고서가 브뤼셀의 EU당국이 현재 통신업계 상태를 진단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에서 통신업체들이 대규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운영 차원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브뤼셀 당국은 각 지역 정부와 통신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신산업에 대해 기존의 강경한 규제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